

관광+수산+기업 3대축 육성 목포 '강소도시' 만들기 박차

크루즈·해상케이블카 개통 눈앞 수산업 살리기 인프라 구축 '척척' 대양·세라믹산단 기업 유치 올인 국토부 정책과 맞물려 탄력 예상

목포시가 '관광도시·수산도시·기업도시'를 기반으로 한 작지만 강한 '강소도시'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목포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비전을 선포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세부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전남지역 제1의 도시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도내 4위로 전락해버린 중소도시 목포를 강소도시로 재편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인구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도시 3~5개를 묶어 '강소도시'로 육성하기로 한 정책과 궤를 같이해 주목된다.

강소도시 목포의 3대 핵심은 '관광도시, 수산도시, 기업도시'다.

'관광+수산+기업 도시'를 유기적으로 묶어 강소도시로 키우겠다는 게 목포시의 전략이다. 시가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전국 제1의 수산도시, 젊고 활기찬 강소기업도시'를 슬로건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바다 위를 나는 크루즈, 그 환상이 9월이면 시작된다. 이는 현재 순천·여수 등 동부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남 도내 관광의 큰 물줄기를 영광·무안·목포 등 서부권으로 돌리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프로젝트의 핵심에는 유달산~고하도를 연결하는 국내 최장의 해상케이블카가 있다.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13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30개 사업 가운데 체류형 숙박시설 유치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대반동과 고하도 해안 등 목포의 대표적인 해안선을 따라 '아름다운 밤바다'를 연출하는 3개 경관조명 사업이다. 총 19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오는 5월 말이면 고하도에서부터 목포대교를 지나 대반동 해안과 동명동 물양장을 거쳐 삼학도에 이르는 총 10.5km 구간의 해안에 경관조명이 설치돼 해상케이블카를 타고 바라보는 목포 해안선이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케이블카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해남이 스카이워크와 해안 힐링랜드, 고하도 목화단지, 유달산 목재체험장 등 인프라 구축 사업들도 추진된다.

해상케이블카 개통 첫 해 100만명 이상이 방문할지와 경제유발 효과가 981억원을 넘을지 등



지난 28일 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 입주기업 일자리 박람회 하당 평화광장에서 개최됐다.

〈목포시 제공〉



해상케이블카 조감도.

이블카가 가져 올 변화에 시민들은 물론 경제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국 제1의 수산도시=강소도시 구축과 관련 또 하나의 목표인 수산도시를 목포 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수산업을 되살려 1930년대 전국 3대도시 6대항의 '영화'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우선 수협이 북항으로 이전되고 포화상태인 북항의 어선 집안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전액 국비(259억원)로 추진된다.

또 15억원을 들여 급유소 1기와 유류탱크 3기를 설치하는 유류 공급시설 개선사업도 진행된다. 180억원 규모의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여기에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물류 기능을 집적화 시킨 서남권 친환경 수산 종합 지원단지(총 사업비 294억)가 내년이면 조성된다.

이 같은 사업들이 모두 북항에 집중돼 향후 북항이 서남해권 수산물 집산지이자 수출 전진기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대양산단에 1000억원(국비 700억, 지방비 300억)이 투입돼 2만3000㎡ 부지에 연면적 7만8541㎡ 규모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되고 대양산단이 고부가가치 가공 집적단

지로 인기가 높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젊고 활기찬 강소기업도시=침체에 빠진 조선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것도 강소도시 구축 관련한 또 하나의 목표다.

목포의 대표적 산업단지인 대양산단과 세라믹 산단에 적지만 강한 중소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돌아오는 역동적인 목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대양산단이 김 산업 수출단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목포시가 '식품업계 반도체'라는 별칭을 가진 김 산업을 차세대 목포 성장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를 대표하는 썬 키스트와 뉴질랜드 키위를 대표하는 제스프리 처럼 '목포 김'을 세계적 브랜드로 키우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또 '김 연구소'의 대양산단 유치를 연내 결정짓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 금 거래소나 증권거래소와 같은 '국제 김 거래소'를 목포에 유치한다는 로드맵도 내놨다.

실제로 대양산단에 김 관련 18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대양산단 김 가공공장 1호인 '기리미'는 공장 가동 1년도 안 돼 500만발 수출탑 수상이 이어 23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한편 3월말 현재 대양산단은 55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해 분양대상 107만㎡ 중 45만972㎡가 분양됐고, 분양률은 42.22%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목포시 복지서비스 업그레이드...보건부문까지 확대

위기가구 의료 사각지대 해소

목포시가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에만 치우친 복지를 보건부문까지 확대하는 등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이는 정부 시책인 기존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정책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변환·실시된 데 따른 선제 대응 조치로 목포시의 복지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책은 동 주민센터에서 보건 부문까지 세심하게 보살피는 감동 행정의 첫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사회복지 전담하는 사회복지과를 주축으로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가 원스톱으로 연결해 앞으로 위기가구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독거사' 예방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동 접수→현지 확

인→보건소 검토·발차 확정→수혜 대상 집 방문 각종 검진 실시(필요시 보건소로 모셔 검사 실시)→검진 결과 세밀한 검진 필요시 관내 의료시설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 사회복지과는 최근 맞춤형복지업무 담당자와 관계 공무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한 설명회를 가졌다.

또 올해 관내 23개 동 가운데 현재 맞춤형복지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7개 동 주민센터에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을 운영해 단선·단수·질병 등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의 통합사례관리와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연결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사후관리에도 힘을 기울인다.

목포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입암산~용라산 25년만에 연결...명품 등산로 탄생

아치형 터널 준공

목포 도심의 끊어진 산맥이 25년 만에 다시 연결돼 명품 등산로로 복원됐다.

지난 2014년 산림청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6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입암산~용라산을 연결하는 아치형 터널(길이 100m, 폭 32m)로, 지난달 30일 준공됐다. <사진>

시는 터널 위에 소나무·동백나무·단풍나무·벚나무·철쭉 등을 심고 계절별 꽃을 하트, 물방울 모양으로 식재해 도시 미관을 배려했다.

또 입암산 둘레길~용라산~철도 웰빙 공원을 거쳐 양율산(14km)으로 이어지는 코스와 삼향천~평화광장~갯바위로 향하는 하당 트레킹 길(10km)도 개통됐다.

목포시 공원녹지와 관계자는 "입암산에서 용



산을 거쳐 철도 웰빙공원까지 산책로가 이어져 생태 녹지축 복원이 앞당겨질 수 있게 됐다"며 "시민이 도심 속에서 편리하게 운동하고 힐링할 수 있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트레킹 코스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서해해경, 민·관·군 12개 단체와 합동 인명구조 훈련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이 지난 28일 여수시 소치항 인근 해상에서 12개 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 참여형 민관군 합동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해양사고시 유관 기관간의 유기적인 합동 대응으로 신속한 인명구조와 함께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여수시청과 여수소방서, 여수세관, 육군 화생방지원대,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구조협회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해경함정 14척, 관공선 4척, 육군정 1척,

민간해양구조선 2척 등 합선 21척과 헬기 1대가 동원된 가운데 여수항에서 출항한 위험물 운반선이 소치항 앞 해상 암초에 충돌, 화물유(HNS)가 유출되고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같이 진행됐다.

긴급 구조 신고를 받은 해경은 민관군과 합동으로 함선을 이용한 익수자 구조, 항공기를 통한 해상 표류 익수자 인명구조, 위험물 운반선 소화훈련, 해양오염방제 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목포=김병만기자 dss6116@kwangju.co.kr

2018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Gunsan Saemangeum International Marathon

일시: 2018. 4. 8(일) 08:00
장소: 군산월명종합경기장

참가신청기간
2018. 1. 15 ~ 3. 20(65일간)

마라톤사무국
063)465-7731, 02)418-7881

국제공인대회 : Full, Half, 10km, 5km
International Certified Marathon Race

www.smgmarathon.com

주최: 군산시, 대한육상연맹
주관: 전라북도육상연맹, 군산시체육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군산시육상연맹